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6월 14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 건설추진단	담당자	• 팀 장 우미향 ☎440-3581 • 담당자 박성현 ☎440-358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각시설 안전성’ 에 관한 토론회 열어

- 소각시설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확보 모색 -

-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시급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14일 “자원순환시설(소각)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각시설의 현재 동향과 안전성 등에 대해 환경 전문가를 통한 시민들의 이해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대비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송도, 청라)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소각기술과 열에너지 회수기술, 대기오염물질 처리 기술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현재 2000년대 이전에 머물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 후보지의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한 권용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기술 동향과 대기오염물질 제거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 처리 공정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소개했다.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스팀과 온수를 생산해 산업체와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사용하고 스팀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소각기술의 열분해, 가스화, 용융기술의 발전으로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소각시설과 대기오염배출 기여도, 소각 기술의 역할, 소각 열에너지 회수 등을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소각시설의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해 정책과 기술의 신뢰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신일섭 인천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각시설이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로서 우리 곁에서 함께 가야 할 시설”이라며 “우리 생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기존시설 처리효율 저하,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자원

순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위한 권역별 확충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